

# 평면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는 갔다

글\_ 정서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책임연구원 syjeong@kist.re.kr

**같**은 정삼각형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꼭지점과 밑변이 각각 다르다. 그렇다고 이 정삼각형을 각기 다른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관료, 과학자, 경제학자 세 명을 원탁에 앉혀 놓고 과학기술발전 모델에 대한 정삼각형의 도형을 그렸다고 가정해 보자. 관료는 자기 앞에 놓인 삼각형의 꼭지점은 성과, 밑변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자는 삼각형의 꼭지점은 과학발전, 밑변은 과학기술인력이란 생각을 하고, 경제학자는 자신 앞에 놓인 삼각형의 꼭지점은 생산성, 밑변은 대차대조표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세 사람 모두 틀렸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 맞다고 해야 할까. 과연 이 모델 문제의 해법은 존재하기는 할 것인가.

요즘 우리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가시화된 신기술 개발력 저하와 산업기술인력 공동화 현상은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비전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해서인지 주요 언론 매체들은 과거의 지엽적인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한국과학기술계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에 대해 연일 심층보도하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수많은 처방과 대안을 불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공계 살리기 대책에 대해 과거에 비해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장기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수립하고 더 좋은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안 중 가장 크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 둘째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미비한 사회적 경제적 예우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늦게나마 바른 방향으로 과학기술계 살리기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일선 연구원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즉, 앞에서 예로든 정삼각형의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 좋은 결말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사실 이건 극비사항(?)이기는 하지만-이공계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우리의 정삼각형은 이미 그려져 있었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과거 한국사회가 목소리 크고 힘센 관료와 경제학자에게만 정답 풀이를 맡겨 놓아 이등변 삼각형으로 변한 기형적 삼각형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보기 좋게 튀어 나오게 되어 그 동안 문제풀이에 직접 참여해

보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오랜만에 느껴보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과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답도 이 시점에서 문제풀이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해법은 무엇인가.

세 사람 모두 2차원적인 정삼각형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 못할 자신들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알통의 논리로, 알통 큰 사람의 주장대로 기형적인 삼각형 그림이 그려져 왔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다. 만약 이 세 사람이 3차원적 정삼각형 즉, 정사면체를 생각했다면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정답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요즘 좋아하는 시너지 효과 기대까지도 서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아가 서로의 밑변(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상호존중의 젠틀맨십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도 창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 사람 모두 3차원의 정사면체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고, 또 생각할 필요성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왜냐 하면 알통의 논리는 항상 역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평면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입체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지나 갔는지도 모른다. 이 세 사람 모두 이제는 입체적인 정삼각형을 만들어야만 할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현실성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정사면체의 밑면에 해당하는 국민의 공감대를 각자 혼신의 노력을 통해 그 당위성을 인정받아야만 이 정사면체는 완벽한 3차원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례로 보아 이공계를 대표해서 관계에 진출했던 몇몇 선배님들께서 과학자의 정답보다는 관료의 정답을 옹호하는 신속하고도 화려한 입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필자는 이미 냉소와 패배주의를 신봉하는 왜소한 과학자로 순응해 버렸다는 고백과 함께, 2차원적인 비판과 방어기전에만 급급해서 살아온 필자와 같은 왜소한 과학자가 3차원의 정사면체 만들기에 무모하게 몸을 던지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공계에 대해 바라는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소망이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1년 수료 후 미 유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